

기고

겨울철 전기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목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히터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시 간헐적으로 켜 켜 주며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민

아니나 다를까. 관중과 포숙의 예견대로, 공손무지(양공의 사촌 동생)는 양공(제나라의 14대 군주)을 살해하고, 왕으로 옹립되었다. 본래 공손무지는 희공(제나라의 13대 군주)의 총애를 받아 세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나, (희공의 아들인) 양공이 즉위하자 대우가 박해져 볼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양공의 아우 공자(公子) 규(紘)는 관중과 함께 노나라로 달아났고, 규(紘)의 동생인 공자(公子) 소백은 자신의 사부(師父)인 포숙(포숙)과 함께 거(莒)나라로 달아났었다.

관중과 포숙이 각각 공자 규와 소백을 따라따로 받들어 모시고 나라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드디어 공손무지(제나라의 15대 군주)도 살해되고 말았다. 이 일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새로운 임금을 모시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이때 두 공자가 재빨리 귀국하여 서로 왕위를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관중은 규 편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격적으로 소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관중의 화살이 소백의 허대를 맞았으므로 소백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하였다. 앞치락뒤치락하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소백이 승리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강태공의 12세손이자 제나라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강성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관포지교(2)

의 16대 임금 환공(桓公)이다. 환공은 즉시 라이벌인 공자 규를 죽이고, 관중을 감옥에 쳐 넣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를 도운 포숙을 재상 자리에 앉히려 하였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처사였다. 그러나 포숙은 "폐하, 한 나라의 주인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의 보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부디 관중을 발탁해 쓰셔야 합니다. 관중이야말로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물입니다. 제발 왕께서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화살 하나라도 이루어진 원수의 감정을 씻어 버리시고, 그를 재상으로 등용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환공 역시 결코 용졸하거나 눈이 어두

운 인물이 아니었다. 그전부터 관중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포숙의 건의대로 관중에게 대부(大夫) 벼슬을 주어 정사를 맡겼다. 과연 관중은 환공과 포숙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후 40여년이나 환공을 극진히 도와 그로 하여금 대군주가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참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넉넉해야 영욕(榮辱)을 안다." 이와 같은 정치 철학으로 선정(善政)을 베풀어 국력을 축적해나간 환공은 제나라의 군주가 된지 7년 만에 이름뿐인 주나라 왕실을 대신하여, 중국 안의 모든 제후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포숙은 관중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

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다. 원래 환공(중국 춘추시대, 재위 기간은 기원전 685년~643년) 자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하의 패자(覇者)가 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듯하다. 하지만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한 뒤, 그의 조언에 따라 군사력을 강화하고 상업·수공업을 육성하여 나라를 튼튼히 하였다. 그 결과 중국 천하의 지도자 자리를 확고히 하여 춘추오패(五霸)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당시 중국의 모든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솔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관중의 덕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마천이 쓴『사기』에도 "환공이 재후를 호령하여 천하의 도를 바로 잡은 것은 관중의 계략에 의한 것이다."는 구절이 나온다. 물론 환공이 만년에 관중의 유언을 무시하고 예전에 추방했던 신하를 다시 등용함으로써 그가 죽은 후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관중과 포숙, 이 두 사람의 우정이 가히 천하 중국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전동킵보드 화재 주의보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어 철저한 예방이 요구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 북구 만덕동 주택에서는 전기 스퀘터 배터리가 폭발해 2명이 숨졌고, 8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고로 2명

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있었다.

완도군 또한 전동킵보드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어, 가정 내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군민들에게 전동킵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홍보에 나섰다.

전동킵보드는 반드시 국가 인증을 받은 안전장치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터리와 충전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충전할 때는 외출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며, 화재 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의 충전도 삼가야 한다.

또한 종이, 옷가지, 플라스틱 등 불에 잘 타는 물질 주변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장소를 확인한 후 충전을 진행해야 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전원 코드를 분리해 과충전을 막아야 하며, 배터리는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장마철이나 우천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전동킵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부주의한 충전 습관은 곧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완도소방서 홍보담당 예방안전과 김승준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음력 10월 5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animal icons and daily fortune text. Signs includ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Kwangju Expressway.